

부활 제 4 주일(성소)

기도서 P 290 A해

제1독서(사 도 2, 14a, 36-41)

제2독서(베르 전 2, 20b-25)

부 음(요 한 10, 1-10)

숲 정 이

발행	천주교 전주교구
편집	사 목 국
인쇄	관 리 국

편집실 : 전주시 서노송동 560~6
 전주 교구청
 ☎ ③ 5098 ③ 3201

□ 강론



성소주일(聖召主日)

김 동 준 신부

분대 하느님은 기록하신 분이시라서 그 분의 부르시는 말씀 역시 기록하시다. 말씀은 곧 생명이며, 만물은 그 분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창세기 1장) 뜻이 없는 부름이 없듯이 하느님의 부르심은 만물안에 주어졌고 만물은 빈틈없이 부르심에 응답한다. 자연의 질서와 아름다움은 하느님의 창조하심과 보살피시는 좋은 증거다. 피조물의 꽃이며 영장인 인간에게는 보다 큰 부르심이 있다.

흔히 성소(聖召)라고 말할 때 성직자나 수도자를 초대하시는 하느님의 부르심으로 일컫지만 이것은 좁은 의미이고 넓은 의미로 모든 사람이 저마다 「삶의 자리」에서 자기 주어진 「몫」이 성소라고 생각해야 되며 오늘 성소주일을 맞아 우리 각자는 이 성소에 성실하게 응답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자신에게 엄숙히 물어야 할 것이다. 부모로써, 자녀로써, 직업인으로써 대부분의 경우 섭섭한 생활의 결과는 하느님의 은총이 적어서가 아니라 은총의 낭비, 곧 생활의 불성실의 결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탓을 밖으로 돌리는 자는 언제까지나 섭섭한 상태로 남을 수 밖에 없다. 세상과 이웃이 나에게 성실하기를 요구하기에 앞서 나의 성실이 앞서야 한다.

신앙이라든가 성덕(聖德)에 나간다는 것은 항상 하느님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응답하고 실천에 옮기는 것을 말한다. 하느님은 좋은 분이시라서 그 분의 뜻을 따름은 언제나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 나의 성소를 무상의 축복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이 축복의 보답은 성인이 되는 것임을 잊지 말자. 교회는 많은 성인들의 다양한 성소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다. 당신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교구는 전에 없이 사제들의 세신 교육 관제로 「사제없는 초대 교회 모습」으로 있다. 「성소」의 좁은 의미도 깊이 생각해 볼 때이다. 나아가 「성소」의 넓은 의미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두번 반복할 수 없는 인생을 이대로 살아도 되겠는가를!

<대전신학대학 교수>



우리를 위해 죽을 수 있소?

어린이날에 참으로 좋은 영화가 텔레비전에 방영되었다. —소년은 죽음을 무릅쓰고 사랑하는 개를 교활한 맹수 하이어나로부터 지켰다. 그는 사막의 불벌 아래에서 죽음을 바라보면서까지도 개를 자신의 분신(分身)처럼 사랑했다. 또다른 영화의 병어리 소년은 늑속에 빠진 말과 함께 자신의 운명을 걸다가 말을 하는 기적을 보여주었다. —사랑의 순수함과 위대한 승리를, 착한 목자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감명깊은 영화였다.

착한 목자는 자기와 테리고 있는 짐승들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무엇이고 다하는 것과 같다. 자기 한 몸의 안일보다는 그들의 성장과 평안함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때에 따라서는 죽음까지도 불사한다. 이것이 바로 참사랑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착한 목자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보여주신 표본이다. 그리스도야말로 참사랑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가 상대적인 거래관계로 점점 퇴색해가고 있는 오늘의 실정이다. 이러한 마당에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를 찾는다는게 우습기는 하지만, 군사부를 목자로 본다면 바람직한 규범일 수도 있다. 군주(지도자)가 백성을 참으로 사랑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월남의 지도자들처럼 자신의 안일만을 위해 금덩이를 싸들고 외국으로 도망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 백성이 믿어서 맡기고 따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지도자가 참목자이다. 또다시 정치 지도자들의 귀중품을 공매처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착한 목자 주일인 오늘, 성소(聖召)에 대해 다시 한번 묵상해 보고 성소육성을 위한 사업에 적극 참여하자. 또한 수련중인 사제들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자. 착한 목자는 우리에게 꼭 필요하니까.

숲 정 이 산 책



가난한 자의 어머니
한민동이다

말씀의 전례

—개 회—

1. 입당 설가 : 공1(본당 임의로 선택)

2. 입당기도 :

주) 주 예수 그리스도여, 주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들이나 흑셋이 모인 곳에 나 또한 거기 있겠노라” 하셨나이다. 비오니, 이 모임에 우리와 함께 계시어, 우리들이 불복하는 마음을 버리고, 머리이신 주님을 중심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아멘.

3. 참 회

① 고백의 기도

② 자비를 구함(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4. 대영광송

5. 분기도 :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천주여, 우리를 천상 기쁨의 나라로 인도하시어, 목자의 용기를 복돋아 주시고 교우들의 결덕을 자라나게 하소서. 성부와 성신과 함께 세세히 영원히 생활하시요 왕하시는 천주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말 씀—

6. 제1독서 : 사도 2, 14a. 36-41

7. 찬가송 : ③ 야훼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노라,

① 야훼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노라, 파아란 풀밭에 이 몸 눕어 주시고, 고이 쉬라 물터로 나를 끌어주시니 내 영혼 싱싱하게 생기 돋아다. ③

② 주께서 당신 이름 그 영광을 위하여, 끝은 살 지름길로 날 인도하셨어라, 죽음의 그늘진 골짜기를 간다 해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무서울 것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그 지팡이에 시름은 가시어서 든든하되다. ③

③ 내 원수보는 앞에서 상을 차려 주시고, 향기름, 이 머리에 발라 주시니 내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되다. ③

④ 한평생 은총과 복이 이 몸을 따르리니 오래 오래 주님 곁에서 살으 오리다. ③

8. 제2독서 : 베드 전 2, 20b-25

9. 알렐루야 ③ 알렐루야

나는 착한 목자이니, 내 양들을 내가 알아보고, 내양들도 나를 알아보다. ③

10. 복음 낭독 : 요한 10, 1-10

11. 강론 : 회장 또는 위임 받은자

—신앙 고백과 기도—

12. 사도신경

13. 신자들의 기도

—봉 헌—

14. 제물 봉헌(봉헌설가) : 공 75, 81 혹은 본당 선택

15. 봉헌기도(헌금후)

주여, 비오니, 기쁨에 가득찬 교회가 드리는 이 제물을 받으시고, 이렇게 큰 기쁨의 원천을 마련해 주셨듯이 영원한 즐거움의 결실도 허락해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③아멘.

16. 감사 기도(후렴 : “천주께 감사 하나이다”)

① 주여, 기록하신 아버지시여, 당신은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섭리하시며, 또한 우리로 하여금 당신께 봉사하며, 날로 기록해지도록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천주께 감사하나이다. (후렴)

② 주여, 기록하신 아버지시여, 우리가 버림받은 자식이었을때와, 구원을 받지 못한 죄인들로서 당신 대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을 때에, 당신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으며,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시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당신의 생명과 행복으로 안도하셨으니, 천주께 감사하나이다. (후렴)

③ 주여, 기록하신 아버지시여, 당신은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성사를 통하여 당신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어, 우리로 하여금 천상의 영원한 즐거움을 맛보게 하시고, 이에 희망과 기뻐를 가지게 하셨으니, 천주께 감사 하나이다. (후렴)

④ 주여, 기록하신 아버지시여, 당신은 외아들이 장차 영광의 어좌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이 세상에 오시어,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시고,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당신의 영원한 나라로 데리고 가실 것이니, 천주께 감사하나이다. (후렴)

17. 평화의 인사

18. 주의 기도

—폐 회—

19. 사제들을 위한 기도(사제 연수회의 성공을 위한 기도를 합송한다.)

+ 아버지 하느님! 사제생활 쇠신을 위해 3주간 특별 연수회를 갖게되는 우리 교구 사제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당신의 사랑을 깨달아 이를 증거하게 하소서, 그들로 하여금 당신의 봉사를 뒤따라 이를 실천하게 하소서, 그들로 하여금 당신의 믿음을 본받아 이를 지켜가게 하소서, 그들로 하여금 당신의 가난을 수락하여 이를 살아가게 하소서, 그들로 하여금 당신의 결손을 배워 스스로 낮아지게 하소서, 마침내 당신 삼위일체를 본받아 모두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20. 폐회사

21. 폐회설가(공 151, 155 혹은 본당 임의로 선택)

—공 지 사 항—

교우여러분의 가정에 신속 배달 하겠읍니다

한미주유소

전화 ⑤ 5 6 6 9 번

주 최남수(아파트니오)
(가톨릭 센터 사무장)

전주시 효자동 1가 283번지

이전 안내

금·은·보석·시계

금 보 장

(전·미성당시계점)

장 금 태(방지거)

전주 남문현(대지여관 입구)

전화 ⑤4989(사구팔구) ⑥4988

표구 일 절

서 화 매 매

윤 표 구 사

전주시 중양동 1가 48

(다가동 파출소 앞)

윤 병 훈(아오스딩)

전화 ⑤ 6 4 4 5

□ 사제 생활 쇄신 집중 세미나 소식

신부님들과의 시월부 이별(?)이 벌써 2주간이나 되었다. 스스로 택하신 귀양살이였지만 모든 교우들의 염원처럼 건강하시고 기도와 공부에 바쁜 나날 이란다. 그간 각 본당과 교우들의 뜨거운 후원으로 흡족하게 세미나가 진행 중이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더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성소(聖召) 주일을 맞이하여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마태 9, 37) 이 세상이 평화를 누리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들을 수 없다고 하신다. 듣고 믿는 사람들이 확실히 아는건 예수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이다.

교회와 이 날을 정한 이유를 되새겨 보자. 첫째는 일꾼을 청하는 기도, 둘째는 인제의 계발과 양성, 셋째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주지 시킴 이리라.

청소년 중 사제와 수도자의 부름에 뜻이 있는 사람은 본당 신부와 상의하여 도움을 받고, 부모는 기도와 조언을 해야하며, 평신도는 육성을 위한 후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또한 이 날에 은퇴 신부님과의 관계를 누우치며 우리의 효성을 다짐하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교훈처럼, 소수의 죄 없고 의로운 사람이 더 많아지도록 기도와 노력을 하자.

시골 공소에 임시 탁아소 개설

신앙의 요람이라 볼 수 있는 고산성당 퇴재 공소에서는 오는 17일(일) 오후 1시에 농촌의 바쁜 일손을 덜기 위해 스스로 탁아소를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해 가을부터 부녀자들이 주축이 되어 모임을 갖어 오던중 농민회 부녀부와 전북 연합회 협력으로 6월 17일까지 1개월 동안 운영될 어린이들을 위해서 무료로 봉사해줄 보모 선생님이 두분이나 자원을 해왔다.

산골 어린이들이 보다 밝고 명랑하게 자라기 위해서 운영되는 탁아소에 어린이들의 장난감이 없는것이 아쉬움이다.

공소의 어려움인 아기들의 교육문제에 까지 관심을 갖고 지도해줄 보모 선생님들의 분투노력과 성공적인 탁아소 운영이 되기를 빈다.

양 서 소 개

□ 성인 지옥에 가다

G·세스브롱 지음 남궁연 옮김 2,500원

가난과 굶주림 병고로 포악해진 노동자들이 모여사는 파리근교 싸니마을에 피에르 신부는 노동사제로 뛰어든다. 공산주의와 기업주에게 저항하며 아무도 손대려하지 않는 인간 비극을 넘치는 형제애로 감싼다.

현대판 나자렛 예수의 삶을 그린 감명깊은 사회소설

전기 운수기 가스렌지 및 시설
가스 운수기 각 종 썬크
백곰표 썬크 주방

(東南綜合 硜硜商社)

전주시 서노송동 639~40

(중앙성당 옆)

☎ ③ 6900

金樂均(요셉)

귀가 어두운 분께 보청기를 권합니다
의료 과학 기계 시약

東南醫療科學器械商社

전주시 서노송동 639~40

(중앙성당 옆)

☎ ③ 6900 야간 ⑥ 0496

金樂均(요셉)

三星物産 전주특약점

위크엔드
Weekend
맥그리거
MCGREGOR



버킹검
Buckingham
주니어 아동복
(남 여)

전주시 중앙동 3가 96

삼화약국 옆 전화 ② 4451

유울리안나

요심이 (405) 김병오



문교부(文敎部)가 인정한
유일(唯一)한 보급기관!

〈사회 1074-690〉

책(冊)을 신속·정확히 읽는
속독법(速讀法) 지도

※ 회원 모집

초·중·고·대학생, 일반

※ 지회 운영자 모집

사단법인(社團法人)

한국독서능력개발 연구회

전북지사(성모병원 3층)

☎ 6-4567

조운희(베드로)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1. 오늘은 성소주일: 사제 양성 후원 성금(적금통) 봉헌과 기도의 날
2. 5월은 성모 성월: 세계 평화를 위하여 성모께 진구합니다
3. 문학 강좌: 5월 16일(토) 오후 7시 30분 가톨릭 센터
강사-이상비 교수(원광대) 제목-시와 시론
4. 제 6회 김안드레아(대건) 추모기 배구대회: 5월 10일 10시, 화산천주교회 배구장
각 분당의 많은 참석이 있길...

(중앙)

전화 ③3651번 주임 신부 문정현
보좌 신부 유종인
보좌 신부 박기영
사도 회장 김병구

1. 꾸리아 월례회: 오후 2시 강당
 2. 사제생활 해신 집중교육: 4월 27일~5월 16일까지
기도와 영육간에 협조바라며 5월 10일까지 사무실에
접수
 3. 견진성사 신청 계속: 5월 23일까지
 4. 분당 예절시간안내: 평일 7시30분, 금요일 10시30분
토요일 4시30분·7시30분, 일요일 6시·9시 10시30분
7시30분
 5. 사제양성을 위한 돼지저금통: 오늘 봉헌해 주세요
오늘 봉헌 못하신 분들은 다음주까지 봉헌해 주세요
- 지난주 봉헌금: 391,626원

(노송동)

전화 ②7032번 주임 신부 김정원
사도 회장 박춘근

1. 제17차 성령세미나 개최: 5월 18일~23일까지
매일 오후 7시 30분~9시 30분까지
 2. 피정중에 계신 신부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신부님
들에게 보낼 빨랑카(영적 및 물적)를 접수하고 있습
니다 1차(5월 4일)에서 못하신 분들의 협조를 바랍
니다
 3. 사순절 저금통 봉헌: 사제 양성 후원기금 마련을 위
해 가져가신 저금통을 다음주까지 가져오세요
 4. 금주의 성경읽기: 구약의 사무엘 상편 전체
 5. 성령기도회: 매주(금)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6. 분당 꾸리아 회합: 오늘 오후 2시부터
각 팀의 장부님들의 빠짐없는 참여를 바랍니다
 7. 형제회 월례회: 오늘 공식전례 후
 8. 신우회 월례회: 오늘 저녁전례 후
 9. 설가정회 모임: 매주(수) 저녁 7시30분
- 지난주 봉헌금: 215,775원

(덕진)

전화 ③2182번 주임 신부 서석기
보좌 신부 유영도
사도 회장 양상열

1. 신부님들께 영적·물적예물을 드립니다
2. 차주전례: 사도회
3. 사제양성 후원 저금통: 다음주까지 봉헌 바랍니다

(복자)

전화 ②5238번 주임 신부 김종택
보좌 신부 김희남
사도 회장 조성호

1. 성우회 월례회: 오늘 10시 30분 말씀의 전례 후
(전성권·노환규)
 2. 16일 신부님들 피정을 마치고 오십니다
 3. 학생회 소풍: 오늘 10시 30분(상관저수지)
 4. 주일학교 매주일 오후 2시 미사 3시
부모님들 관심을 가지고 빠짐없이 보내 주세요
 5. 매일 미사시간에 말씀의 전례가 있으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271,410원

(서학동)

전화 ②2276번 주임 신부 김병환
사도 회장 한혈수

1. 빨랑카: 사제들을 위하여 많은 영적·물적 빨랑카
감사합니다
2. 반장회: 오늘 10시 전례후
반장님들은 빠짐없이 참석 바랍니다
3. 할머니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4. 가정방문: 수녀님과 사도회에서 가정방문 있습니다
7반(5월 12일), 8반(5월 13일), 9반(5월 14일)
반장님은 9시30분까지 성당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5. 성심회 일자변경: 꾸리아 관계상 5월 11일로 연기
(착오없이 바랍니다)
 6. 교리교사: 신임-김도승(엘기울), 오우근(베드로)
앞으로 수고하시겠습니다
 7. 다음주 전례담당: 독서-① 박병환 ② 정형석
신자들의 기도-김수길
- 지난주 봉헌금: 148,700원 교무금: 110,000원

(숲정이)

전화 ③7366번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이강노

1. 성소주일 사제양성을 위한 영적·물적예물 협조
오늘 주일헌금은 신학생들을 위하여 교구청에 납부
하오니 특별히 협조 바랍니다
 2. 사순절 돼지저금통을 사무실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성모성월 매일 밤 8시 많은 신자 참석바랍니다
 3. 성도회 월례회: 5월 17일 공식미사 후 구 유치원
 4. 매주 공식미사 후 성가연습: 성가대원은 물론 많은
신자들도 같이 새 노래 한곡씩 배워듣시다
 5. 주일미사 후 예비자교리는 구 유치원 교실에 모여주
세요
 6. 주일학교 후원회 복음연구: 매주(금) 오후 3시~4시
 7. 주일학교 소풍: 5월 11일, 후원회 월례회는 소풍장
소에서 하오니 착오없이 바랍니다
 8. 차주 전례담당: 해설-이기호
독서-① 박대규 ② 정한철, 기도-남상용
 9. 신축기금 내주신 분
카리마분당 신일액중 21,000원
중앙동-손혜려나(15,000원)
- 지난주 봉헌금: 245,580원 교무금미수: 4,000원

(전동)

전화 ③3222번 주임 신부 김병준
보좌 신부 박이종
사도 회장 이병준

1. 자모회: 공식전례 후
 2. 장우회: 저녁전례 후
 3. 성화회: 다음주(17일) 공식미사 후
유사-유석중·유기동 형제
 4. 구역회합 일정
남노송동2구-12일 오후 2시(한정숙 마리아) ②2569
동완산동3구-12일 오후 8시 이영배 ②5600
풍남동1구-13일 오후 2시 김일배(서울탁구장)
동완산동1구-13일 오후 8시 배양길 ②4476
 5. 세미나에 참석하신 두분 신부님을 위해 매일 기도를
바쳐 주시고 영적·물적 예물은 사무실에 접수 바랍
니다
 6. 수녀원 신축기금: 신자여러분의 좀더 많은 협조 바
랍니다
 7. 성화상영: 매일 오후 8시(5월 16일까지)
- 지난주 봉헌금: 428,880원

(파티마)

전화 ②0915 주임신부 김영일
사도회장 채수현

1. 꾸리아 회의: 오늘 1시 30분
 2. 사도회 월례회: 오늘밤 7시 사도임원 전원 참석요망
 3. 돼지저금통: 오늘까지 사무실에 접수 바랍
니다
 4. 79·80년도 교무금 미납자는 속히 완납 바랍
니다
 5. 수녀원 신축기금: 신입자는 속히 완납 바랍
니다
 6. 사도들의 모후 신축기금: 25,000원 감사
번두희(미카엘) 1실만원, 박성수(그레고리오) 1만원
엄익순(테레사) 5천원
 7. 사제 세미나 영적·물적 빨랑카 적극 협조 바랍
니다
- 지난주 봉헌금: 100,497원 교무금: 495,000원